백두산2

21세기 태양 대학시절

주체91(2002)년 4월 22일

김일성종합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급중학교를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주체49(1960)년 9월1일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절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4년간을 보내신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해서 사료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 10월에 창립됐습니다. 그러니 올해로써 쉰 두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에는 오늘 열 여섯 개 학부와 아홉 개의 연구소, 예순 다섯 개의 학과와 수백 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200여 개의 강좌와 연구실이 있고 저명한 교수 박사들을 비롯한 교직원 연구사들이 5천5백여 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용남산 마루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학에는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춘 본청사와 제1호교사, 제2호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진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백여 만 권의 장서와 1,200석의 열람실을 가진 과학도서관이 있고 이밖에 자연박물관, 체육관, 출판사와 인쇄공장, 실습공장들이 있습니다. 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숙사들과 식당, 병원, 종합편의시설 등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자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또 어떤 대학은 그 규모를 자랑하며 또 어떤 대학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인물인 누구누구가 공부한 대학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학이란 어디까지나 교육의 전당인 것만큼 그 자랑은 응당 교육의 수준,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그 나라의 발전수준과 문명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학이 과학과 기술,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할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최고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김일성**종합대학은 투쟁 속에서 혁명인재를 키워온 혁명적인 대학,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대학으로서 세계에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국민회의 상임고문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고문 그리고 남조선 천도교 중앙총부 전교령으로 있던 오익제선생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했었습니다. 선생은 대학이 교육의 내용과 질은 물론 그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그쯘히 갖춘 굴지의 대학으로 전변된 데 대해서 해설도 듣고 또 직접 과학도서관, 체육관과 넓은 부지에 펼쳐진 대학구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참관 후 그는 자기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그 소감의 일부를 인용해 드립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부럽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인간자원의 시대 다시 말하여 인재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인재양성 측면에서 일찍이 **김일성**수령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방 후 그 어려운 시기에 최초로 이 대학을 설립해 주시고 또 끝없이 배려하여 주신 그 은덕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시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적이 어려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고 이름 높은 대학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피력했습니다. 참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 수령님의 손길 아래 태어나고 자라난 영광스러운 대학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종합대학이 세상에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인류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세워졌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북반부지역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개밖에 안되는 중학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8.15직후 종합대학을 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인재가 걸렸습니다. 대학을 운영하자면 교원이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창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친히 무어주시고 교원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함으로 된 위촉장까지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흩어졌던 학자들로 교원대열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 일꾼들이 학생들에게 읽힐 책이 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국내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셔서 수십 만 권의 과학서적을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사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농민들이 수령님께 올린 충성의 애국미로 웅장한 대학교사를 짓도록 해 주셨습니다. 해방직후 아무 것도 없는 빈터 위에 시급히 건설해야 할 공장이나 시설들은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자금이라고는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재가 있어야 건국도, 민족의 장래도 있다고 하시며 수많은 건설대상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종합대학부터 일떠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종합대학 본청사인데 오늘도 용남산 마루에 무게있게 서 있습니다. 대학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은 명실공히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위한 대학인 것만큼 인민의 종합대학이라고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합대학은 응당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하나와 같은 이 지향을 담아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종합대학은 창립취지로 보나 그리고 창립과정으로 보나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종합대학이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있는 것은 또한 이 대학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의 사적이 뜨겁게 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해서 현지지도만도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하셨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강령적인 교시를 주셨는데 그 횟수만도 500여 차례나 됩니다. 특히 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면서부터 더욱 그 이름을 빛내이는 대학으로 전변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당시 비록 대학생의 신분으로 계셨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그분은 대학의 사상리론계를 이끄신 탁월한 스승이시었고 대학생들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키워내신 청년지도자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1960년대 초로 말하면 교육내용에서 볼때 아직 주체가 튼튼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육내용에서는 맑스나 레닌이 전개한 고전들을 많이 우상화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의 골간을 키워낼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만큼 이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하신 그분께서는 대학기간에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주체적 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 근본원리로부터 새롭게 혁

대학시절

김일성종합대학
용남산마루에서의 맹세
창조적인 학습기풍
만페이지읽기운동

김일성종합대학

신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러한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대학의 교육내용을 일색화하는 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교육내용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는 것과 함께 또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이 순결하게 고수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원래 종합대학은 창립 첫날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해방전쟁 때나 전후복구건설 때나 이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앞장에서 풀어 나갔습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인민군입대를 탄원해서 전선으로 달려나간 것도 바로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심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제1생명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삼고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관점에 기초해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료들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사료에 기초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하시지 않은 리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분명 세계적인 대학, 사회주의대학의 본보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용남산마루에서의 맹세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그분께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세상에 내놓으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편의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오늘 노래로 시로 언제나 즐겨 부르며 읊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85(1996)년 10월에 창립 쉰 돌을 맞이했는데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그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큼직한 화강석비에다 새겨 용남산에 정중히 세웠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그 시를 몹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시에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정치가들의 약력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학을 했습니다. 흔히 크고 발전된 나라에 유학을 해야만 정치가로서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로부터 동방사람들인 경우에는 서방을 우상화한 데로부터 그곳으로 많이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고 발전된 나라나 서방나라들에서는 자기들의 대학을 자랑하면서 유학초청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중을 마치실 무렵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에서는 그분께서 자기네 종합대학에 유학하시도록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권고를 다 거절하시고 조국의 대학 평양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참으로 사색도 실천도 어버이 수령님과 꼭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 활동시기 국제당에서부터 모스크바유학을 권고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는 국제당이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조봉암과 같은 사람들이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그곳에 다녔습니다.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 속에서는 ≪모스크바유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모스크바유학에 대한 동경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위해 외국유학이 아니라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그 어떤 남의 나라 대학이 아니라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왜 기어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셨겠는가. 여기에 바로 그분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분께서 1960년 9월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던 날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용남산마루에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 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들으신 것처럼 시는 모두 세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왜 조국에 있는 대학,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종합대학에서 기어이 공부하시려는가 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신 그이의 견결한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시를 읊으신 자리에서 학우들에게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이 시를 읊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늘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오던 심정을 뜻깊은 오늘 이 산정에서 터놓았을 뿐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늘 가슴 깊이 간직해 오신 것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나라 사회주의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상을 이 시에다 담으신 것입니다.

이 시의 첫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해나가실 결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 리상사회를 이땅위에다 일떠세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10대의 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던 것이고 항일혁명투쟁 초시기에 쏘련에 유학하실 것을 바라는 동지들의 권고도 마다하시고 조선혁명의 준엄한 실천 속에서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영도하셨습니다. 조선에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자면 조선을 알아야 하고 조선의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 그대로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것이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배우고 체득해야 된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간직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지로부터 그이께서는 조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 준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음 이 시의 두 번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실 것을 형상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민족이 사는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는 이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즉 전진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사나운 풍랑과 폭풍에 맞아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풍랑과 폭풍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나가야 하고 그래서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시고야 말겠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견과 의지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처럼 견결한 의지와 함께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을 지니고 계심으로 해서 오늘과 같이 우리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위력한 힘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민은 역사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신심 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의 셋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첫 발자국을 옮기시던 그때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가져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습니다.

이 련에 있는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 속에는 언제나 주체사상의 발원지, 주체의 조국인 조선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에서 주체사상이 빛을 뿌리게 하고 그 빛발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쳐 나가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드팀없는 신념입니다. 조선을 통해서 세계를 보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통해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시려는 것은 어리신 시절부터 간직하신 그분의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 살 되시던 때의 일입니다. 가볍게 돌아가는 지구의를 신기한 듯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갑자기 손뼉을 치시며 어머님에게 ≪**이것 보세요. 우리 나라가 도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 돌아요. 온 세상이 다 우리 나라를 따라 돌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을 따라서 온 세계가 돈다고 하신 그이의 유년시절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3면에 계속)

창조적인 학습기풍

안녕하십니까. 언제인가 한 해외교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여러가지 혁명활동을 벌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군님께서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럴 좀 들려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이께서 대학시절에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몹시 알고 싶어하리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발휘하신 학습기풍,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주지 못할 독학가의 위대한 모범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문제든 파고들어 정력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고 착실하게 꾸준히 학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목인 정치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분께서 대학시절에 쌓으신 지식의 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학습기풍과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그이의 창조적인 학습태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장점 중에서 제일가는 장점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창조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그분의 위인상을 우리는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그이의 학습태도를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물지 말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물지 않는다는 것, 자기 머리로 사고해서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학습을 하는 데서 제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머저리가 되고 맙니다. 원래 과학연구사업이나 혁명실천은 다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주위세계를 개조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혁명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사업실천에서도 그렇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무엇이든 창조적으로 대하시였고 학습에서도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어리신 시절 그분께서 사물현상을 창조적인 안목에서 대하신 례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신 유치원시절의 일화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수학적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인류의 유년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치원연령기에 벌써 생활속에서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더 큰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확고하게 제기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사물현상을 고찰하시는 그분의 창조적인 안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분의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중학시절에 있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의 동쪽과 쏘련의 동남쪽, 일본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서술돼 있었습니다. 중학교시기의 나이라면 교과서에 씌여진 내용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것을 강의하는 교원들도 그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교과서에 씌여진 대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는 이러한 서술은 주체적 립장에 서지 못한 서술이라고 하시면서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가 자리잡고 있는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구라파의 동북 또는 아시아의 중부 및 북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쓰면서 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서술해야 하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도 응당 우리가 자리잡고 있는 아시아대륙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어 이와 같이 남달리 일찍부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대하셨고 학습에서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로는 위대한 가정에서 받으신 애국애족의 혁명적 교양이며 둘째로는 남달리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누구보다도 심오히 체득하신 데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교문에 들어서시기 전부터 벌써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방법론으로 풀어나가시는 높은 자질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기간 기성의 리론들을 연구학습하고 분석하시면서 철저히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철학강의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의에서는 모순의 법칙,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모순에 의해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사물발전의 원인과 동력이 모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이야말로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학의 과학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끌려 학생들은 거기에 취급되는 일체의 문제들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날도 흥분해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그들이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학생들을 몸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오늘 배운 모순의 법칙이 중요한 철학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현상이 반드시 모순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데는 일련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뜻의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요컨대 모든 사물과 현상이 서로 상반되는 대립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큼 다 일정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 모순으로 하여 대립물들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며 이 투쟁을 통해서 사물이 변화발전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모순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서로 상반되는 대립물들의 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아야 옳겠는가. 사실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을 모순이자 투쟁이요 투쟁이자 발전이라는 기성의 리론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제시하신 문제의 요점은 바로 이런 것이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랜 세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공인되어온 기성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대하시는 경애하는 그분의 학습태도에서 실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성의 리론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과학리론적 업적이지만 그 법칙을 사회발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게 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착취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착취계급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지만 그러나 그 투쟁을 일으키고 승리에로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모순에 찬 사회를 변혁하고 선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로동계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주의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온갖 낡은 것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높은 요구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적 투쟁, 즉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셔서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은 바로 사회발전의 담당자이며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은 발전하려고 하는 운동의 주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운동의 주체를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으로 보시는 그이의 론단은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였고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선행이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석평가하신 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실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집필한 것은 1916년 봄이였습니다. 여기에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기본특징과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이러한 정식화들은 자본주의가 방금 제국주의에로 이행한 당시의 제국주의를 분석한 기초 위에서 내려진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명제들을 가지고서는 현대제국주의를 옳게 분석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학생들 속에서 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제국주의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창조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레닌이 분석한 지난날의 제국주의와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전면적으로 밝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유명한 론문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론문에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그분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하기에 인도 델리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현대제국주의론의 창조자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분의 현대제국주의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창조적인 학습태도의 숭고한 모범으로 과학연구분야나 교육사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상욱선생 - 김일성대학방송강좌

(2면에서 계속)

이 발견은 오늘날 엄연한 현실로 됐습니다. 하기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비슈와나쓰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영도자의 믿음과 사랑의 정치는 조선을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1억4천만 평방키로메터의 광대한 세계의 중심에 세워놓았다. 어젯날 예루살렘과 부타가야를 찾던 종교인들이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주체의 복음을 찾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뜻을 품고 모스크바를 찾아가던 사람들이 향방을 바꾸어 평양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비슈와나쓰의 이 말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원대한 구상이 참말로 과학적이고 현명한 것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것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대학에 첫 등교를 하시던 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혁명활동에 큰 걸음을 내딛으시였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상욱선생 - 김일성대학방송강좌

만페이지읽기운동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당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고 대학생들의 학습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현대과학과 인류지성의 상상봉에 오르실 높은 목표와 숭고한 리상을 내세우시고 학습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의 정력적이고도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뭇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 다른 대학생들의 학습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게 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운동을 발기하시게 된 데는 몇 가지 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맑스나 레닌의 리론을 절대시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실이지만 조선민족의 형성문제에 대한 학과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전의 명제에 맞추어 그것을 풀려고 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황당한 론의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상은 사람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할 줄 모르는 머저리로 만든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우자면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혁명을 잘 하자면 다른 나라의 것보다 자체의 것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득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도록 불을 지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리유는 그때 일부 학생들 속에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에만 매달려 학습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이였습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오신 지 반년이 지난 주체50(1961)년 3월에 학생초급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며 대학기간에 모든 동무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려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한해 동안에 책을 1만 페이지 읽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동안 내가 몇 동무들과 짜고 들어 책을 읽어보았는데 한 해에 얼마든지 1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300일 동안 학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책을 하루에 한 30 페이지씩 읽으면 1만 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봉화를 지펴 올리시게 된 것은 말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그분께서 지펴 올리신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책읽기운동은 이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독서운동이라 해가지구 고전이요, 소설이요 하면서 아무 책이나 많이 읽거나 또 옛날 선비들처럼 서재에서 명문구들을 따로 외워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독서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그전에 있었던 이런 단순한 독서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이 어떤 운동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기 위한 충성의 운동이며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운동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시면서 그 첫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내세우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그렇게 해야 대학생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고 조선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보고와 연설, 결론과 담화들에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이 명시돼 있구 구체적인 방도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맑스나 레닌이 써놓은 책들을 살펴봐도 거기에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학생들은 덮어놓고 선행고전가들이 쓴 책을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자면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려서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시면서 그 첫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내세우신 이유는 또한 대학생들을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와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친 풍부한 지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과전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심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전면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면서 이 운동은 다음으로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망탕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기초가 없이 짓는 집이 종당에는 기울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적지향성 있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서적, 기술서적, 문예서적들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욕망만 앞세우면서 리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 안됩니다. 요컨대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모든 학생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전공분야에서 과학의 상상봉에 올라서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신 다음 그것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주셨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친히 요해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때 일부 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원문을 가지구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아니라 로작의 내용을 풀이한 해설서를 학습하거나 흥미본위로 읽으면서 페이지 수나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대학생들의 가슴에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만들자면 로작의 구절구절에 담긴 사상을 깊이 새기면서 그 진수를 파악할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요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학생들의 심장 속에 뜨거운 충성심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철두철미 원문에 기초해서 깊이 파고들어 착실히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도 공원을 거닐면서도 기숙사, 식당이나 회관에서 짬시간을 이용해서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학습했습니다. 학생들은 수령님의 로작에서 심오한 철학을 체득했고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범주와 법칙들을 리해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모든 진리를 리해했습니다. 이것은 참말이지 혁명적인 학풍을 세우는 데서 하나의 거대한 전환이였고 혁명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면서 그것을 더욱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친히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노래를 만들 것을 발기하시고 그 창작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노래제목도 잡아주시고 가사에 담아야 할 내용도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다 된 다음에는 한구절한구절씩 수정 가필하셔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발기하신 만페이지책읽기운동, 그것은 단순한 독서나 학습운동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한 충성의 책읽기운동이라는 것,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높은 학습목표에로 치달아 오르기 위한 집단적인 책읽기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서 대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새로운 학풍이 확고히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상욱선생 － 김일성대학방송강좌